



특별선교주일

설교 자료

세계성찬주일



이 예배 자료는 세계성찬주일 예배 준비를 위한 목회자 및 예배인도자 자료집의 일부입니다.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집에 포함된 다른 예배 자료와 함께 예배 순서에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교 본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식탁에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서론 개요

세계성찬주일은 보편적 교회가 성찬의 식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주일입니다. 성찬의 거룩한 신비를 통하여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 언어와 문화, 계층과 공동체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연합감리교회 신학에서 성찬은 은총의 수단(Means of Grace)으로 이해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통해 교회를 거룩함과 제자도, 복음전도, 공회, 화해, 정의, 그리고 평화를 위한 공동체로 세워 가십니다. 연합감리교회의 공식 가르침은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연합을 표현한다”라고 밝힙니다. 최근 발행된 연합감리교회 자료(ResourceUMC)의 핸드북 역시 성찬을 세계성찬주일의 기초로 소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도록 권면합니다.

분열과 인종적 상처, 전쟁과 외로움, 불신과 두려움으로 찢어진 세상 속에서 세계성찬주일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시며 그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분열보다 강하며,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 식탁은 어느 한 나라나 민족, 문화, 개인이나 교단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식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입니다.

세계성찬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단순한 지역 공동체를 넘어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담을 넘어 이웃과 지역사회, 도시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분열과 갈등, 외로움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이 거룩한 날은 우리의 가장 깊은 정체성이 국적이거나 민족,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주님의 식탁은 곧 그리스도의 식탁입니다. 이 식탁은 은혜와 용서, 화해와 기억, 환영과 새로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식탁 앞에 나아와 다음의 진리를 기억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식탁의 주인이십니다.
-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 교회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몸입니다.
-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성찬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받았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또한 성찬을 마친 후에는 예배당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도시, 나라와 온 세상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제자도와 복음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있는 삶의 자리로 찾아가 함께 하나님의 치유와 화해, 정의와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선교주일

설교 자료

세계성찬주일

성경적 토대

주요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0:16-17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떡과 잔이 단순한 상징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참여하고,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보여 주는 거룩한 표징입니다. 이 본문은 많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 한 몸을 이룬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세계성찬주일의 핵심 성경 본문입니다. 연합감리교회의 공식 가르침 또한 이 본문을 근거로 성찬이 나타내는 교회의 하나 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설명합니다.

보충 성구

(교회 상황에 적합한 것을 고르세요)

요한복음 17:20-23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드린 것이었으며, 교회의 연합이 선택 사항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라시는 것인 동시에 세상을 향한 교회의 중요한 증언임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28-35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떡을 떼는 순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이 본문은 성찬이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의식이 아니라,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계시의 자리임을 가르칩니다. 떡을 떼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도행전 2:42-47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일과 기도예 전념



했습니다. 이 본문은 성찬이 예배의 한 순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나눔, 공동체적 삶, 그리고 세상을 향한 증언으로 이어지는 교회의 삶 전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4:1-6

바울은 교회가 한 몸이며,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안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교회의 일치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본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6-9

선지자는 모든 민족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이 잔치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 주며, 슬픔과 수치와 죽음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7:9-10

요한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보좌와 어린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속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본문은 성찬이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사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화해의 능력을 눈에 보이게 증언하는 은혜의 증거이며,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묶고 만들어 가시는 수단입니다. 연합감리교회의 가르침은 성찬을 제자도, 금홀과 정의, 화해와 평화,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파송되는 삶, 그리고 복음 전도와 긴밀하게 연결하여 이해합니다.

신학적 구조

이 설교의 기초는 웨슬리 전통에 굳게 서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찬을 “은총의 수단(Means of Grace)”으로 이해했습니다. 성찬은 결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성도들이 거룩함을 향



특별선교주일

설교 자료

세계성찬주일



해 자라게 하시고,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감리교 신학의 흐름은 오늘날의 연구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일 칼턴 펠턴(Gayle Carlton Felton)의 이 거룩한 신비: 연합감리교 인들과 성례는 책은 성찬을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하나 됨, 그리고 선교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연합감리교 전통의 가장 대표적인 성례전 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프리 웨인라이트(Geoffrey Wainwright)는 성찬과 종말론이라는 그의 책에서 성찬은 장차 이루어질 하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개인과 교회뿐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비전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랜디 매덕스(Randy Maddox)는 웨슬리 신학의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화, 그리고 실천적 제자도에 둡니다. 또한 감리교의 열린 성찬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설명합니다. 매덕스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최초의 조건은 어떤 자격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신실하게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그는 연합감리교 성찬 예식의 초청문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와 이 거룩한 성례를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러한 증언은 세계성찬주일을 신학적·목회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여러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뒷받침됩니다.

라트렐 이스터링(LaTrelle Easterling) 감독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세계성찬주일의 정신을 잘 표현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믿음을 담대하게 살아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의 말은 주님의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 됨이 단지 기념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와 정의, 복음 전도, 그리고 세상을 향한 공적인 증언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야 할 삶을 일깨워 줍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예전적 입장 또한 성찬이 곧 선교와 파송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테일러 버튼-에드워즈(Taylor Burton-Edwards)는 “성찬은 우리의 식사이며,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

님의 은혜이다. 우리는 그 양식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으로 먹임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2026년 성찬의 중요성

그리스도께서는 2026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불확실함보다 강합니다. 주님의 식탁은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제자들을 세우며, 계층과 민족, 언어, 성적 지향, 국적, 또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도록 부릅니다. 세계성찬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분열된 세상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교회가 한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사랑이 여전히 혐오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또한 연합감리교회의 세계성찬주일 자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 됨과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며, 이 절기의 의미를 교단 전체의 다양한 지도자를 세우는 사명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구조

1. 이 식탁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식탁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제한하거나 정치화하거나 사유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식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이 이 식탁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를 이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2. 이 식탁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듭니다.

이 식탁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 계층과 언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합니다. 성찬은 우리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속한 공동체 안으로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설교 자료

세계성찬주일



3. 이 식탁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이 식탁에서 양식을 받는 것은 단지 위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먹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 복음 전도와 긍휼, 정의와 화해, 그리고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연합감리교회 성찬 예식에서도 성찬 후의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드리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목회적 전환

세계성찬주일은 결코 작거나 가벼운 절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의식에 그치는 날도 아닙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계심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거룩한 표징이며, 교회가 하나의 교회나 한 민족, 한 나라, 또는 하나의 예배 형식을 넘어서는 더 크고 넓은 그리스도의 몸임을 증언하는 날입니다.

기념의 식탁은 단지 개인적인 위로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식탁은 증언과 인내, 거룩함과 선교, 그리고 세상을 향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 가는 자리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기억인 동시에 거룩한 파송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할 뿐 아니라, 성찬의 식탁에서 일어나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정의를 실천하고, 우리의 지역사회와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식탁에서 증언으로”, “은혜에서 섬김으로”, “제자도에서 복음전도로” 이어지는 여정은 우리의 이웃과 도시, 나라와 전 세계의 연합감리교 연대적 공동체 안에서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용기 있게 이끄는 교회의 부르심을 보여 줍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성찬주일 헌금을 통해 이 사명을 실천합니다. 이 헌금은 전 세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에 사용되며, 오늘을 예배의 날인 동시에 연대주의를 실천하는 증언의 날이 되게 합니다.

결론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은 우리는 이제 교회의 담을 넘어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 그리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복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나아갑시다.”

비고

이 설교 자료는 세계성찬주일을 일 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로만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념의 식탁(Remembrance Table)이 은혜와 하나 됨, 기억과 정의, 선교와 소망, 그리고 구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며,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식탁임을 가르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받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교회가 하나의 지역교회나 한 민족, 한 나라, 또는 하나의 예배 형식에 국한되지 않는 더 큰 그리스도의 몸임을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며,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에도 세계성찬주일이 여전히 긴급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1. https://www.umc.org/en/content/an-open-table-how-united-methodists-understand-communion?utm_source=chatgpt.com “How United Methodists understand communion | UMC.org”
2. https://s3.amazonaws.com/Website_Properties/news-media/documents/this-holy-mystery-communion.PDF?utm_source=chatgpt.com “This Holy Mystery: A United Methodist Understanding of Holy Communion”
3. https://divinity.yale.edu/sites/default/files/2025-06/jennings_cv_july_2024.doc?utm_source=chatgpt.com “Willie James Jennings - Yale Divinity School”

스테파니 무어 핸드 목사·박사,
서노스캐롤라이나 연회 전도 담당